
THE
OPEN
DOOR

**제2부**

**문턱 3**

**열린 문**

여러 해 동안 나는 힘이란 통제에 있다고 생각했다.

말을 통제하는 것.

감정을 통제하는 것.

반응을 통제하는 것.

고통을 통제하는 것.

모든 깊은 믿음이 그렇듯, 천천히 흡수한 생각이었다.

아무도 그것을 드러내 놓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런데도 그 메시지는 어디에나 있었다.

대화 속에.

행동 속에.

본보기 속에.

눈빛 속에.

문화 그 자체 속에.

그래서 나는 일찍부터 단순한 규칙 하나를 배웠다.

버티는 것.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버티는 것.

젊을 때는 이것이 미덕이라고 믿었다.

오늘의 나는 그것이 전략에 지나지 않았음을 안다.

어떤 순간에는 유용한 전략.

다른 많은 순간에는 위험한 전략.

너무 오래 억눌린 것은 무엇이든 언젠가는 출구를 찾기 때문이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를 바꾼다.

숨는다.

기다린다.

그러다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문을 두드린다.

모든 것이 힘을 요구하는 듯했던 내 삶의 한 계절을 기억한다.

일.

가족.

책임.

병.

결정.

나를 믿고 기대는 사람들.

답이 필요한 사람들.

방향을 찾는 사람들.

나는 멈출 여유가 없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매일 새로운 무게를 하나씩 더했다.

매일 나 자신에게 귀 기울일 순간을 더 뒤로 미루었다.

더 뒤로.

자꾸만 더 뒤로.

인간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얼마나 오래 무시할 수 있는지는 놀라울 정도다.

그러나 영원히는 아니다.

누구도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

목소리가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몸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온다.

피로가 쌓인다.

잠이 달라진다.

정신이 지친다.

감정이 더 연약해진다.

그리고 네가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님을 천천히 깨닫는다.

너 자신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진실은 단순하게 왔다.

진정한 진실이 언제나 그러하듯.

특수 효과 없이.

예고 없이.

볼거리 없이.

어느 날 무게가 너무 커졌다.

그리고 방어는 너무 작아졌다.

그 침묵을 기억한다.

그 고독을 기억한다.

어떤 역할도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그 갑작스러운 느낌을 기억한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직업인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

남편이 아니었다.

경영자가 아니었다.

저자가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울었다.

우아한 울음이 아니었다.

통제된 울음이 아니었다.

진짜 울음이었다.

먼 곳에서 오는 울음.

여러 해를 가로질러 오는 울음.

간직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것들을 함께 데려오는 울음.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뜻밖의 감각이 찾아왔다.

나약함의 감각이 아니었다.

해방의 감각이었다.

너무 오래 닫혀 있던 방이 마침내 창문을 연 것처럼.

공기가 다시 도는 것처럼.

무언가가 마침내 억눌리기를 그친 것처럼.

근본적인 것 하나를 이해한 것은 그때였다.

감정은 적이 아니다.

전령이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러 온다.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더 시끄러워질 뿐이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용기란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 순간 나는 용기가 자신을 관통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통이.

두려움이.

슬픔이.

진실이.

사람들은 흔히 취약함을 균열로 상상한다.

나는 그것이 문이 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를 그만두는 순간, 마침내 자신을 알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바깥의 많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날부터 무언가가 바뀌었다.

갑자기 더 지혜로워지지는 않았다.

갑자기 더 강해지지도 않았다.

더 진실해졌다.

그것은 다른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방식으로 듣기 시작했다.

더 큰 이해를 갖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신의 고통을 건너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쉽게 알아보기 때문이다.

판단하지 않는다.

축소하지 않는다.

곧바로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

알아본다.

그리고 이 알아봄은 이미 하나의 도움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취약함을 새로운 빛 아래에서 보기 시작했다.

내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들은 겉보기에 무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진실한 사람들이었다.

자신의 인간다움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고 내보일 줄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최선.

어떤 날에는 그것이 많다.

다른 날에는 적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지닌 것이다.

돌아보면, 나는 그 순간을 패배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의 문턱으로 여긴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턱 가운데 하나로.

전에는 힘이란 울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에는 힘이란 자신의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다.

꾸며 내기를 그만둘 때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성숙이 있기 때문이다.

보이려 하기를 그만둘 때.

연기하기를 그만둘 때.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간 본성을 받아들일 때.

연약한.

불완전한.

경이로울 만큼 불완전한.

오늘의 나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

시간도 기억하지 못한다.

모든 정황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배운 것만을 기억한다.

나눈 고통은 덜 무겁다는 것.

진실은 자존심보다 더 자유롭게 한다는 것.

취약함은 존엄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

존엄을 완성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입 밖에 낼 줄도 몰랐던 문장 하나를 기억한다.

단순한 문장.

많은 것을 바꾼 문장.

나는 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